

중동 3개국 순방 정상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이권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khlee@kiep.go.kr, 044-414-1073)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shson@kiep.go.kr, 044-414-1266)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khryou@kiep.go.kr, 044-414-1165)



차 례

1. 순방 배경 및 경과
2. 순방 3개국 경제 개요
3. 순방 3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4. 순방 성과
5. 시사점

주요 내용

- ▶ 중동 3개국 정상외교는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각국 정상과의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우리 기업 진출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은 중동 내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공고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호혜적 협력관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 양자간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성과 상호보완성을 확인하고, 수소, 방산, 교역, 인프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냄.
 - [UAE] 최근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방산, 수소 등의 분야에서 수출 계약, 금융 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양자간 협력 다각화 기초를 공고히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관련 실질적인 협력사업 도출, 수소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한·GCC FTA 협상 재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이집트] 한·이집트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역 및 투자 기반 강화, 친환경 협력 등 양자간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의 의의는 우리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아랍 국가들과 다양한 부문에서 호혜적·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데 있음.
 - GCC 국가들과의 FTA 협상 재개, 한·이집트 FTA 관련 연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히고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집트가 EU,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이집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수소, 스마트시티, 디지털 기술, 그린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협력은 향후 공동의 발전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될 것임.
- ▶ 수소 협력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안보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안보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수소경제', '수소도시' 등의 키워드가 보여주듯이 에너지 협력 분야 이외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됨.
 - 그린 수소 및 블루 수소의 생산·운송·활용 등에 연관된 저탄소 에너지기술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운반선 건조, 충전소 건설, 금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중동 산유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1. 순방 배경 및 경과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은 중동 내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 공고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호혜적 협력 관계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오랜 기간 에너지 수입, 해외건설 수주를 중심으로 경제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번 정상간 만남을 통해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 수주의 각각 37.5%, 16.7%를 차지하는 중동 내 주요 경제협력 국가임.¹⁾
- 이집트와 UAE 정상이 2016년 3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방한하였고, 우리 정상의 답방은 2020년 3월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으로 순연되었음.
- 순방 대상 국가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 이 국가들과의 미래 에너지 협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한·GCC FTA 협상 재개 및 이집트와의 FTA 추진 등 중동과의 호혜적 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중동 3개국 정상외교는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각국 정상과의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우리 기업 진출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UAE 정상외교는 1월 16일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참석, 무함마드 알 막툼(Mohammed Al-Maktoum) 총리와의 회담, 서울대 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무함마드 빈 자이드(Mohammed bin Zayed)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회담은 현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으나 무함마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 겸 UAE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방산, 수소, 우주, 사막 농업 및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²⁾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왕세자와의 회담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 △야시르 알 루마얀(Yasir Al-Rumayyan) 아랍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접견 △나예프 알 하즈라프(Nayef Al-Hajraf)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접견 등의 일정으로 순방이 진행되었음.
-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수소, 원전 및 방산,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대형 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음.³⁾

1) 최근 5년(2016~20년) 누계 기준(HS 2709), 한국무역협회, K-stat, 맞춤형분석,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 20);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총괄계약현황, http://www.icak.or.kr/sta/sta_1001.php?f_date=2016/01/01&t_date=2020/12/31(검색일: 2022. 1. 20).

2)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와 4조 원대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022. 1. 17),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794>(검색일: 2022. 1. 20).

- 이집트 순방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참석 및 공동 언론발표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차고지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 양국 정상은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통한 FTA 체결,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확대, 인프라 구축 협력, K-9 자주포 도입 등의 방산협력, 이집트 내 한국기업 진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⁴⁾

표 1. 중동 3개국 순방 주요 일정

방문국	방문일	주요 일정
UAE	2022. 1. 16~17	-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참석 - 무함마드 알 막툼 총리와의 회담 -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참석 -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2022. 1. 18~19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 - 야시르 알 루마얀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접견 - 나예프 알 하즈라프 GCC 사무총장 접견 -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 방문
이집트	2022. 1. 20~21	-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 협정서명식 참석 및 공동 언론발표 -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차고지 방문

자료: 청와대, 청와대 뉴스룸, <https://www1.president.go.kr/c/blue-house-stories?page=1>(검색일: 2022. 1. 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순방 3개국 경제 개요

가. UAE

■ UAE는 최근 거시경제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석유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UAE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규모와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봉쇄조치와 거리두기 규제 강화로 관광산업까지 위축되면서 -6.1%의 성장률을 기록함.⁵⁾
-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2.2%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당해 전 세계 평균 성장률 5.9%에 비해 낮은 수치임.⁶⁾

3)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 및 오찬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2022. 1. 18),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24>(검색일: 2022. 1. 19).

4) 「협정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한·이집트 협력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2022. 1. 21),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74>(검색일: 2022. 1. 22).

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5).

6)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p. 6.

- UAE는 석유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21년 UAE는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자국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제조업 발전, 국내 산업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오퍼레이션 3,000억(Operation 30bn)’, ‘다음 50년을 위한 프로젝트(projects of the 50)’와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성장전략을 발표함.
 - 그린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우주 및 항공 산업 개발을 위한 ‘국가우주전략 2030(National Space Strategy 2030)’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국가 전략도 최근 연달아 수립하고 있음.
- 이와 함께 UAE 정부는 외국인 100% 지분 보유를 허가하고 스폰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다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표 2. UAE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백만 달러)	385,605	422,215	417,216	358,869	410,158	
실질 GDP 성장률(%)	2.4	1.2	3.4	-6.1	2.2	
1인당 GDP(달러)	명목	41,444	45,076	43,900	38,661	43,538
	PPP	68,504	68,857	70,180	67,445	67,942
수출(백만 달러)	313,504	320,991	313,749	273,074	333,619	
수입(백만 달러)	246,311	235,339	233,297	210,754	233,937	
GDP 대비 경상수지(%)	7.1	9.6	8.5	3.1	9.7	
GDP 대비 재정수지(%)	-1.7	1.9	0.6	-5.6	-0.5	
소비자물가상승률(%)	2.0	3.1	-1.9	-2.1	2.0	
실업률(%)	1.6	2.5	2.2	2.2	3.2	

주: 2020, 2021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5); EIU(2021), Country Report UAE (December), p. 11; EIU(2020), Country Report UAE(December), p. 11; IHS,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2021 December.

나.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첨단제조업, 관광 등 비석유부문 육성과 함께 수소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부문이 GDP(40.0%), 정부 재정 수입(61.1%), 수출(68.7%)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함.⁷⁾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 국제유가 급락에 의한 석유부문 수출 및 정부 재정 수입 감소, 공공 주도 인프라 개발 연기 등의 영향으로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7) 2020년 기준,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Annual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 2020, <https://www.stats.gov.sa/en/823> (검색일: 2022. 1. 16).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비석유부문의 저발전 및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온건한 이슬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다양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1년 10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소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탄소 순환경제 구축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고유가 기조 유지, ‘사우디 비전 2030’ 관련 정부 주도 프로젝트 본격화 등으로 4.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⁸⁾

표 3.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백만 달러)		688,586	786,522	792,966	700,118	842,588
실질 GDP 성장률(%)		-0.7	2.4	0.3	-4.1	2.8
1인당 GDP(달러)	명목	21,114	23,539	23,174	19,996	23,762
	PPP	48,015	49,151	49,016	46,489	48,908
수출(백만 달러)		221,862	294,387	261,617	173,864	247,614
수입(백만 달러)		135,299	137,752	153,807	131,442	150,842
GDP 대비 경상수지(%)		1.5	9.2	4.8	-2.8	3.9
GDP 대비 재정수지(%)		-9.2	-5.9	-4.5	-11.3	-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3.1	-1.9	-2.1	2.0
실업률(%)		6.0	6.0	5.7	7.4	-

주: 2021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1); EIU Country Data(검색일: 2022. 1. 11).

다. 이집트

■ 이집트는 차관 도입의 조건으로 IMF와 추진한 경제구조 개혁 및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옴.

- 이집트는 2016년 말부터 3년에 걸쳐 총 120억 달러 규모의 IMF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변동환율제 시행, 에너지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함.
- 재정 불안정, 높은 실업률 등 이집트의 만성적인 거시경제 문제가 이를 통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변동환율제 도입 직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고금리 정책 유지에 따라 최근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 이집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2017년 10.4%에서 2021년 7.3%로 5년간 약 3.1%p 감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5%에서 4.5%로 약 19.0%p 둔화됨.⁹⁾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1)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4).

- 아울러 이집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북부연안 지대에 위치한 대형 천연가스전의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에너지 자립 달성 및 천연가스 수출 재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국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함.
- 이에 힘입어 이집트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ICT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함.¹⁰⁾
- 이렇듯 이집트는 다양한 부문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던 2020년에도 역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4. 이집트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명목 GDP(백만 달러)	237,528	250,253	302,335	363,245	396,328	
실질 GDP 성장률(%)	4.1	5.3	5.6	3.6	3.3	
1인당 GDP(달러)	명목	2,485	2,577	3,057	3,601	3,852
	PPP	11,158	11,521	11,940	12,124	12,282
수출(백만 달러)	23,339	28,046	28,472	25,049	35,748	
수입(백만 달러)	59,855	65,826	65,959	62,013	79,364	
GDP 대비 경상수지(%)	-6.1	-2.4	-3.6	-3.1	-3.9	
GDP 대비 재정수지(%)	-10.4	-9.4	-8.0	-7.9	-7.3	
소비자물가상승률(%)	23.5	20.9	13.9	5.7	4.5	
실업률(%)	12.2	10.9	8.6	8.3	9.3	

주: 2020, 2021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검색일: 2022. 1. 14); EIU(2021), Country Report Egypt (December), p. 11; EIU(2020), Country Report Egypt(December), p. 11.

3. 순방 3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가. UAE

- 한·UAE 경제협력은 전통적으로 원유 수입과 건설 수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수소, 방산, 농업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UAE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 수주에서 각각 8.1%, 5.4%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와 석유 및 건설 부문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¹¹⁾
- 단 201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UAE 원유 수입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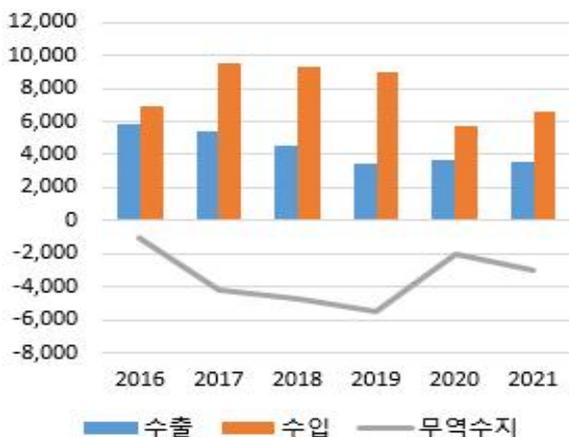
10) 이집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전략 2030(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30)과 5개년 개발계획 등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건설, 관광, 물류, ICT, 석유화학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11) KITA,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 21);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http://www.icak.or.kr/sta/sta_0101.php(검색일: 2022. 1. 21).

-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동차 부품, 무기류, 연초류 등이 있으며, 특히 무기류의 경우 이란과의 갈등 심화, 예멘 내전 장기화 등으로 UAE 내 방산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수출규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1~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UAE 무기류 수출규모는 전년 동 기간(1억 9천만 달러) 대비 약 1.5배, 5년 전 동 기간(3천만 달러) 대비 약 15배 상승한 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¹²⁾
-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UAE 산업첨단기술부와 수소경제협력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가 추진하는 블루 암모니아 개발사업에 GS에너지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최근 수소부문으로도 양국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9년 2월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제가 방한하는 등 양자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됨.

그림 1. 한·UAE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21년은 1~11월 기준임.
자료: KITA,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 14).

그림 2. 한국의 대UAE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9월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 20).

나. 사우디아라비아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과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및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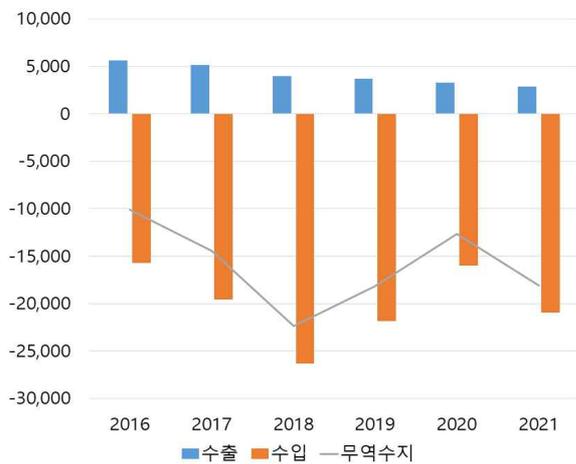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2016년 56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20년 33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2021년 1~11월 기준 2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내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구매력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고무제품 등의 현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12) MTI 4단위 무기류(9701) 기준임.

- 2020년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출(MTI 4단위: 9701, 8억 5천만 달러)은 역대 갈등 고조 및 드론 공격과 같은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전년대비 120.7% 급증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직접투자는 2016년 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6,923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 1~9월 기준 4,29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0%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직접투자에서 대부분을 차지(92.0%, 2016~21년 누계 금액 기준)하는 건설업의 경우, 2014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프라·설비 관련 투자 지출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음.

그림 3.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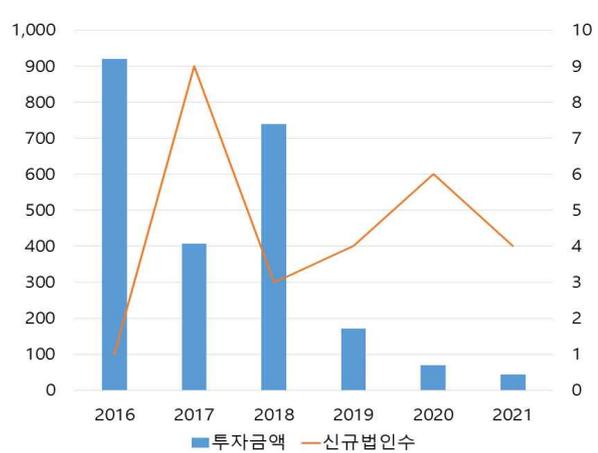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2021년은 1~11월 누계 기준.
자료: KITA.net(검색일: 2022. 1. 10).

그림 4.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9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 14).

다. 이집트

■ 한국과 이집트의 경제협력은 주로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프라 건설부문에서도 다양한 협력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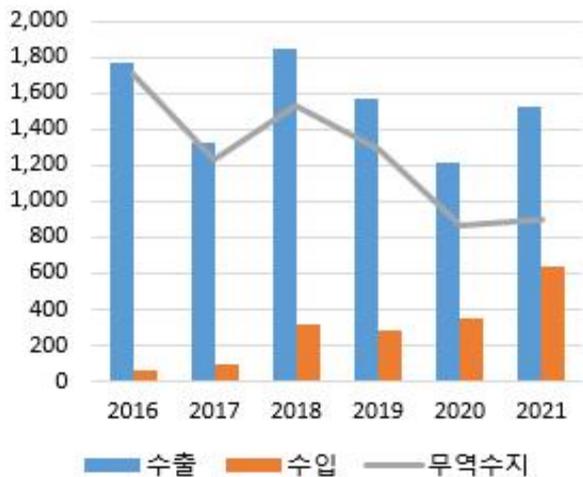
- 한·이집트 경제협력은 상당 부분 교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천연가스 수입 증가로 양국 교역규모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6년 18억 3천만 달러에서 2021년(1~11월 기준) 21억 6천만 달러로 5년간 약 18.0%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한국의 이집트산 천연가스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폭은 17억 1천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감소하였음.¹³⁾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의 경우 천연가스와 납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13) KITA,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 14).

- 건설 수주에서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동 건설 수주에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임.
 - 2021년 6월 현대로템이 나그하마디-룩소르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고, 2022년 1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엘다바 원전 2차(원자로 등 핵심시설을 제외한 부속 건물) 건설사업의 단독 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양국간 건설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나라 가전 기업과 관련 부품 기업들이 이집트 내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케이블, 섬유 부문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여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음.¹⁴⁾

그림 5. 한-이집트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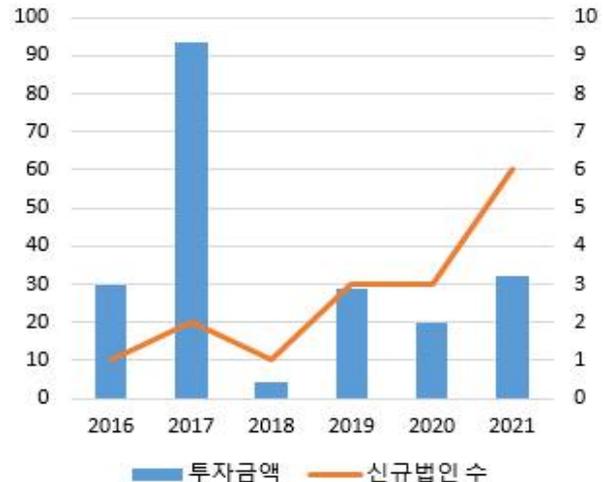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2021년은 1~11월 기준임.
자료: KITA,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2. 1. 14).

그림 6. 한국의 대이집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 건(우))



주: 2021년은 1~9월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2. 1. 20).

4. 순방 성과

가. UAE

■ 최근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방산, 수소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며 양자간 협력 다각화 기초를 공고화함.

- 양국은 에너지 수입과 건설 수주 위주의 전통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협력부문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를 공고화하였음.

14)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알기, 이집트경제/시장정보, 이집트 주요 진출기업 현황, https://overseas.mofa.go.kr/eg-ko/brd/m_11517/view.do?seq=1345009&page=1(검색일: 2022. 1. 20).

- 특히 최근 양국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방산과 수소,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 밖에도 우주, 사막 농업, 해수 담수화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표 5. 한·UAE MOU 및 주요 계약 체결 현황

계약명	체결 기관	기대효과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증장기협력 MOU	방위사업청(한) 국방부(UAE)	- 양국간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위한 중 장기 계획 수립 -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수출증진 및 투자확대를 위한 MOU	한국무역보험공사(한) 에티하드신용보험(UAE)	- 수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산업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수소·암모니아 공동연구협약	한국석유공사(한) SK가스(한)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UAE)	- 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블루 암모니아 테스트-카고 시범도입 계약	한국석유공사(한)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UAE)	- UAE산 블루 암모니아 시범 도입
보건의료협력 MOU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 아부다비보건청(UAE) 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UAE)	- 양국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임상 연구 진행 - 양국 의료관광 증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확대
정부환자 위탁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약	서울대병원 포함 13개 의료기관(한) 아부다비보건청(UAE)	- UAE 정부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본여신약정	수출입은행(한)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UAE)	-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지식문화 교류 MOU	국립중앙도서관(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UAE)	- 체결 기관간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교류

자료: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증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M-SAM2) 수출성사」,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menuId=678&bbsId=326&nttSn=40454>(검색일: 2022. 1. 19);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요 동정, 사장, 이집트 EGE와 업무협약 체결(1. 20), https://www.ksure.or.kr/news/major_v.do (검색일: 2022. 1.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한·UAE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된다」,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0100>(검색일: 2022. 1. 21);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수출입銀, 중동 수주 제고 위해 총 110억 달러 금융망 구축」, <https://www.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5005001&pagesize=10&boardtypeId=36&boardId=65225>(검색일: 2022. 1. 22); 청와대, 청와대가 전합니다, 김정숙 여사,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 관련 서면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781>(검색일: 2022. 1. 22).

■ [방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에 대한 약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함.¹⁵⁾

- 양국은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UAE 무함마드 알 막툼(Mohammed Al Maktoum) 총리의 회담을 계기로 4조 1,8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M-SAM2) 수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음.

15)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와 4조원대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794>(검색일: 2022. 1. 19).

- 이는 국산 단일 무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국내 업체별 납품 규모는 LIG넥스원 2조 6,000억 원, 한화시스템 1조 2,000억 원, 한화디펜스 4,000억 원 수준임.
- 아울러 방위사업청과 UAE 국방부가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간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양국은 이번 천궁II 계약과 MOU 체결에 대해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¹⁶⁾

■ [수소] 공동연구, 실증사업, 금융 지원 확대에 합의하는 등 수소 부문에 있어 양자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됨.¹⁷⁾

- 양국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블루 암모니아 시범도입 사업 추진, 수소부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합의하였음.
 -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와 ‘수소·암모니아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에티하드신용보험이 체결한 ‘수출증진 및 투자확대를 위한 MOU’는 수소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함.¹⁸⁾
- 2021년 9월 ‘수소경제협력 MOU’가 체결되고 수소 기반 대중교통 관련 공동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등 최근 양국간 수소부문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이 부문에서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건의료] 환자송출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정부환자 위탁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 협약을 체결함.¹⁹⁾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아부다비보건청, 아부다비공중보건센터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임상연구 진행, 아부다비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자문, 의료관광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환자 위탁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 더불어 우리나라 13개 의료기관이 아부다비보건청과 ‘정부환자 위탁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UAE 정부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16) 국방부, 보도자료, 「한-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업무협약 서명 및 천궁2(M-SAM2) 수출성사」,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menuId=678&bbsId=326&nttSn=40454>(검색일: 2022. 1. 23).

17)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한-UAE 사막을 함께 넘는 우정, 수소 협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786>(검색일: 2022. 1. 23).

18)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요 동정, 사장, 이집트 EGE와 업무협약 체결(1. 20), https://www.ksure.or.kr/news/major_v.do(검색일: 2022. 1. 22).

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한-UAE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된다」,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0100>(검색일: 2022. 1. 21).

나.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통해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관련 실질적인 협력사업 도출, 수소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한·GCC FTA 협상 재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순방 기간(1월 18일)에 진행된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제조에너지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역량 강화 △보건·생명 △중소기업·투자 등 5개 분과별 주요 성과 및 향후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표한 장기 국가혁신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국으로, 2017년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시작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의제 및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해왔음.
- 특히 이번 위원회의 제조에너지 분과의 주요 성과로는 두산중공업이 이람코 개발회사, 사우디투자공사와 함께 주조·단조 합작법인(TWAIG Casting & Forging)을 설립하고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에 연간 6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들 수 있음.

표 6.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분과별 주요 성과

분과	주요 성과
제조·에너지	-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9.4억 달러 규모의 주조·단조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조선소 건설 합작법인 설립에 이은 조선 분야 연계진출로, 총 66억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망
스마트 인프라·디지털화	- 현지 대체수원 확보를 위하여 사우디 맞춤형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2022년 3월 중 파일렛 플랜트 운영 착수 예정 * 저온 저압에서 수분을 얻는 막증발법 활용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담수 생산량 증가 등을 통해 기존 해수담수화 기술 대비 경쟁력 확보 가능
역량 강화	- 기간 사우디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및 직업기술 연수 등 실시 * 사우디 측의 관심사항인 창의성·혁신·인공지능 분야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강화
보건·생명	- 분당서울대병원 및 이지케어텍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병원 간 업무협약 체결(2019. 6), 이지케어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포함한 병원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우디 내에서 비대면으로 환자 진료 중, CMC리야드 병원 및 RCHS병원에서도 병원정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 완료하고 활용 준비
중소기업·투자	- 양국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야 합작 투자를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자와 사우디모태펀드 간 금융지원 협력 합의 *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파트너 연결 등 포함, 투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 1)하고 추진 중이며, 조만간 합작 중소기업 설립을 통한 성과 기대

자료: 「한·사우디 경제협력 플랫폼 가동 성과 확대 모색」(2022. 1. 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검색일: 2022. 1. 21) 토대로 저자 작성.

- 1월 18일 개최된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수소, 지식재산, 교육 등 총 14건의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 5건이 수소와 관련된 것임.
- 5건의 수소 관련 MOU 중 4건은 한국전력공사, 현대오일뱅크, 포스코 등 실제 협력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간에 체결된 것이며, 블루 수소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청정연료인 그린 수소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 이지케어텍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의료소프트웨어 ‘닥터앤서’의 구매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통해 디지털 및 AI와 같은 4차 산업 관련 협력 확대의 계기도 마련됨.
-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GCC 사무총장은 2022년 1월 19일 한·GCC FTA 공식 재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2022년 1/4분기 중에 1차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한·GCC FTA 협상은 2009년 제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GCC의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GCC와 다른 국가 간 FTA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 한·GCC FTA 협상 재개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GCC와의 미래지향적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²⁰⁾

표 7. 한·사우디아라비아 수소 관련 주요 MOU 체결 현황

계약명	체결 기관	기대효과
수소·암모니아 협력 MOU	한국전력공사(한) 아람코(사)	- 수소와 관련한 투자, 생산, 운송, 저장, 판매 등 전 주기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 및 사업타당성조사 MOU	포스코(한) 삼성물산(한) PIF(사)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 수소 생산사업 공동 추진
수소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수소공급망 구축 협력 MOU	수소융합얼라이언스(한) 아람코(사)	- 수소 인증 및 규제 요구사항 관련 정보 교환
수소공급망 협력 MOU	S-Oil(한) 아람코(사)	- 경쟁력 있는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를 한국에 들여와 저장·공급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잠재 협력 기회 발굴
블루 암모니아 및 블루 수소 사업화 공동협력 MOU	현대오일뱅크(한) 아람코(사)	- 암모니아 활용 타당성조사 및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암모니아 장기 공급 기회 발굴

자료: 「한전, 수소 경제 시대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 공동협력」(2022. 1. 19),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포스코-삼성물산-PIF, 사우디아에서 그린수소 생산 사업 추진」(2022. 1. 19), 포스코 보도자료; 「아람코, 사우디·한 투자포럼에서 10건 협약 체결」(2022. 1. 18), 아람코 뉴스; 「S-OIL-사우디 아람코, 블루수소 협력 MOU 체결」(2022. 1. 19), S-OIL Story 뉴스; 「현대오일뱅크, 아람코와 암모니아 활용·공급 협력」(2022. 1. 21), 조선비즈(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 23).

다. 이집트

■ 한·이집트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역 및 투자 기반 강화, 친환경 협력 등 양자간 경제협력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함.

- 양국은 우리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정책과 이집트 지속가능발전전략 2030(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30)의 상호 보완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동 구현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논의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개최된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교역 및 투자 기반 강화, 친환경 협력, 미래산업 협력 등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20) 「한·GCC FTA 협상, 10여년만에 공식적으로 재개」(2022. 1. 1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검색일: 2022. 1. 21).

-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ah al-Sisi)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술, 정보 통신, 조선, 자동차,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하고, 특히 전기차부문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힘.²¹⁾
- 이 중 교역, 인프라 건설, 전기차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시되고 MOU가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K9 자주포가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²²⁾

표 8. 한·이집트 MOU 및 주요 계약 체결 현황

계약명	체결 기관	기대효과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산업통상자원부(한) 통상산업부(이)	-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KOICA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외교부(한) 국제협력부(이)	- 이집트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 기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MOU	수출입은행(한) 국제협력부(이)	- 이집트 정부 주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여지 확대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외교부(한) 국제협력부(이)	- 철도, ICT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이집트 진출 지원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OU	두산중공업(한) 햇산 알람(이)	- 이스마일리아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양국 기업의 수출증진 및 프로젝트 공동지원을 위한 MOU	한국무역보험공사(한) 수출신용기관(이)	- 수소, 신재생에너지, 그린산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무역 촉진을 위한 협력 MOU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 상업청(이)	- 무역 촉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사절단,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전기 특특(3륜차)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	(주)명신(한) NASCO(이)	- 전기 특특 개발을 위한 양자간 협력
전기 마이크로 버스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	(주)명신(한) EAMCO(이)	- 전기 마이크로 버스 개발을 위한 양자간 협력

자료: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61> (검색일: 2022. 1. 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251&menuNo=4010100(검색일: 2022. 1. 22); 두산중공업, 뉴스&미디어, 「두산중공업, 이집트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나선다」, https://www.doosanheavy.com/kr/about/news_board_view?id=21000456&page=0&pageSize=9(검색일: 2022. 1. 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통령 이집트 방문 계기에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http://www.motie.go.kr/motie/nc/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192&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검색일: 2022. 1. 21);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요 동정, 사장, 이집트 EGE와 업무협약 체결(1. 20), https://www.ksure.or.kr/news/major_v.do(검색일: 2022. 1. 22).

21)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한·이집트 FTA를 추진하고, K-9 자주포 도입 논의 등 방산·인프라·전기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71>(검색일: 2022. 1. 24).

22)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61>(검색일: 2022. 1. 22).

■ [무역]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체결을 통해 한·이집트 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함.²³⁾

- 양국은 1월 20일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양자간 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주요 수입품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 양국간 무역규모 증대, 이집트의 무역 네트워크 확장 구축 등으로 최근 이집트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이집트는 EU, MERCOSUR, 터키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FT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인프라 건설]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향후 이집트 정부 주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²⁴⁾

- 한국과 이집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음.
 - 양국은 2016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금융패키지 MOU를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7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에 합의하였는데, 최근 지원 한도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확대하였음.
- 향후 양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철도·메트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이 에너지, 과학기술 고등교육, ICT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와 함께 우리 외교부가 이집트 국제협력부와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두산중공업이 이집트 내 개발사업자 겸 대형 건설사인 핫산 알람(Hassan Allam)과 현지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에서도 성과를 얻음.²⁵⁾

■ [전기차] 양국 자동차부품 업체간 전기차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부품 개발 및 기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²⁶⁾

-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계기로 명신-NASCO(승용차 제조 국영기업), 명신-EAMCO(승용차 제조 국영기업) 간 각각 전기 특특(3륜차), 전기 마이크로 버스 개발 관련 협력의향서가 체결됨.

23) 청와대, 청와대 이야기,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1861>(검색일: 2022. 1. 22).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 https://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251&menuNo=4010100(검색일: 2022. 1. 22).

25) 두산중공업, 뉴스&미디어, 「두산중공업, 이집트 해수담수화 시장 진출 나선다」, https://www.doosanheavy.com/kr/about/news_board_view?id=21000456&page=0&pageSize=9(검색일: 2022. 1. 22).

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대통령 이집트 방문 계기에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192&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검색일: 2022. 1. 21).

5. 시사점

■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의 의의는 우리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내 아랍 국가들과 다양한 부문에서 호혜적·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데 있음.

-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의 국민소득을 모두 합하면 22개 아랍 국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3개국과의 경제협력이 역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GCC 국가들과의 FTA 협상 재개, 한·이집트 FTA 관련 연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히고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집트가 EU,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이집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수소, 스마트시티, 디지털 기술, 그린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협력은 향후 공동의 발전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될 것임.
 - 중동 3개국과의 FTA는 미래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R&D, 상호투자를 통한 합작기업 설립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소 협력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안보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안보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수소경제’, ‘수소도시’ 등의 키워드가 보여주듯이 에너지 협력 분야 이외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됨.

- 향후 수소의 생산 및 도입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린 수소 및 블루 수소의 생산·운송·활용 등에 연관된 저탄소 에너지기술 연구,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 운반선 건조, 충전소 건설, 금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중동 산유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차원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협력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는 디지털 전환을 토대로 석유화학, 모빌리티, 항공, 우주, 방산, 보건의료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상간 맺은 MOU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부와 민간부문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하향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 의제를 끊임 없이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기업 간 소통 채널이 활성화 되어야 함. **KIEP**